



사진

지역노조운동을 강화하자

윤재설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직노동조합
선전편집부장

새로운 천년을 둘러싼 전망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노동운동도 예외는 아니어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전략을 모색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대체로 노동운동진영에서는 산별노조 건설과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21세기 노동운동의 주요 과

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물론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체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역노조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섰다

이같은 고민이 있기 훨씬 전부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조직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지역노조가 대두되어왔다. 1987년 노동법개정으로 청계괴북노조(지금의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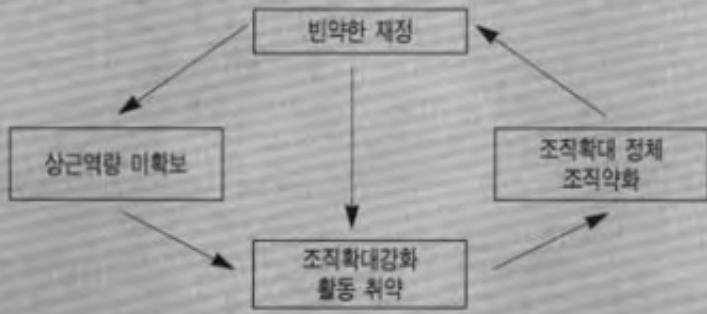
지역의류제조업노조)가 합법화된 이후 인쇄노조, 제화노조, 건설일용노조, 지역금속노조 등의 지역노조가 건설되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직노동조합(이하 서사노)를 비롯해 설계노조, 에니메이션노조, 지역여성노조 등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서울지역의 지역노조들이 <지역노조연대회의>를 결성하여 노조간 교류와 조직활동경험 공유 및 공동의 연대활동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근래 들어 많은 지역노조가 결성되는 것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기업단위로 묶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와 더불어, 어렵다고 해서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라라는 판단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려는 지역노조가 지역별로, 업종별로 여러 곳에서 결성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지역노조의

내부상황을 들여다보면 지역노조운동의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역노조는 불안정하고 빈약한 재정으로 인해 현재 일하고 있는 몇 안되는 상근자들에게 임금은 고사하고 활동비마저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서사노의 경우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조차 재정난으로 흐지부지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상근자를 확보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상근자들은 초인적인 활동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노조 활동이 대규모 조직화대 사업이나 일상활동을 비롯한 활발한 조직강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수공업적인 활동에 매여 있다. 이는 결국 조직화대의 정체와 조직약화로 이어지며 이런 결과가 다시 빈약한 재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노조 그 빈곤의 악순환



그리면 이같은 빈곤의 악순환은 벗어날 수 없는 지역노조의 천명인가?

아무도 긍정하고 싶지 않은 질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돌파구를 찾아야한다.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지역노조는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라는 꿈을 이루지 못할 것임은 물론 현재 1%도 안되는 노조조직률에서 한 발짝도 더 뒷나갈 것이다.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직노동조합의 2000년 사업방침은 다음과 같다. 지역노조 활동가들과 지역노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이 우리 노조의 사업방침과 함께 돌파구를 찾을 것을 제안한다.

서사노의 2000년 사업방침

서사노는 서울지역 중소영세사업장 사무직·전문직·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올해 4월 출범한 지역노조이다. 서사노는 '벤처노조', '틈새노조', '네트워크노조'를 지향한다. 기존의 기업별노조의 틀을 깨고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벤처노조이고, 기업별 노조체계의 외곽에 존재해왔던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틈새노조이며, 활동방식에서 조합원 중심의 조직체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노조이다.

하지만, 1999년 활동을 되짚어보면 서사노가 지향하는 바대로 활동해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의욕만큼 조직확대가 되

는 것도 아니었고 부족한 인원으로 자부투쟁에 전념하다가 일상사업을 놓치기 일쑤였다. 이제 서사노는 설립 첫해의 활동을 냉철히 평가하고 혁신방향을 찾아야 할 때다. 다음 내용은 '99 서사노 활동평가와 2000년 사업계획을 위한 간부수년회에 제출된 내용이다.

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조직화는 임액을 통하거나 노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런 수준으로는 대규모적인 조직화가 불가능하다. 사무직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가두선전전, 각종 선전물을 통한 노조홍보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조직화도 웹사이트 관리에 머물지 말고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요즘 광고방송에 나오듯 '찾아가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대상 노동자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조직화정책을 세워야 한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페상적인 과학으로는 안된다. 취업형태별, 성별, 업종별, 직종별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임단협에서 벗어나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임단협이기는 하지만 지역노조에서는 아직까지 통일교섭·내포교섭의 경험이 일천하고, 단위사

이제까지 조직화는 인맥을 통하거나 노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런 수준으로는 대규모적인 조직화가 불가능하다. 사무직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가두선전전, 각종 선전물을 통한 노조홍보가 필요하다.

업장 교섭 또한 일반적인 임단협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체불임금이나 부당해고에 한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역노조는 임단협체결보다는 조세개혁, 사회보험통합, 재벌개혁 등 임금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슬로건을 가지고 싸워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노조인만큼 지역내 정치활동을 고민하고 총선과 지자체선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

③ 노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상담·법률자문은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 외에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직률이 높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알선센터 및 컴퓨터교육 등 직업훈련과정 개설을 중기 과제로 잡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입한 조합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노조가입의 장점을 느낄 수

99년 4월 10일 열린 서울지역사무직노조 결성식에 참가한 조합원들.



사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의 교양 학교 개설, 취미별 소모임 구성, 신용협동 조합운영, 공제사업 등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젊은 층에게 ‘구닥다리’로만 느껴지던 노동조합이 신선하게 다가올 것이다.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전체 노동운동의 뼈이다.

현재 산별노조 결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도 주된 초점은 산별노조를 만들면서 “어떻게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기업별노조의, 조직노동자의 단순한 합으로 결성되는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만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정규직 조합원들에 기반한 산별연맹들은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조

직화의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날로 하락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방기는 결국 대기업·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의 목을 죄게 될 것이다. 미조직노동자 조직화가 조직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20세기 초 서구 노동운동이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노조를 미숙련공 중심의 산업별노조로 전환시켰듯이, 21세기를 목전에 둔 한국 노동운동은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를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산업별노조로 전환시켜야 하는 과제에 봉착해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